

2021 임용고시(국어학) 합격 전략

1. 문제의 성격을 안다.

현재 임용고시는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년까지는 논술형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좀더 단순화되었다. 또 기입형의 문항 수가 적어진 대신 서술형의 문항 수가 늘었다. 좀더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것이다. 기입형은 서술형보다 쉽지만 그 내용은 반드시 쉬운 것이 아니다. 그래도 문제 맥락을 통해서 그 답을 추리해 낼 수 있게 출제되므로 서술형에 비해 그 체감 난이도는 낮다. 그에 비해 서술형은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그러므로 늘 서술형 문제를 염두에 두고 정리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올해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지만, 서술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 문제가 쉬울수록 합격점 근처에 많은 사람이 몰려 있으므로 세밀한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한다. 여러 유형의 문제에 대비해야 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장 간명하게 서술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 그 첫 걸음은 철저한 기출 문제 분석이다.

1.1. 출제 유형 분석

지난해까지 문제의 유형은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으로 나뉘고, 문항 수는 각각 8, 13, 1개였다. 올해는 논술형이 없어지고 기입형의 수가 줄고 서술형이 늘어서 기입형 6개, 서술형 17개가 되었다. 논술형이 없어지면서 문제는 하나 더 늘었는데, 문법 영역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6개가 출제되었다.

기입형 문제는 한 문제에 두 개의 답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년의 경우에는 3개의 답을 쓰게 한 문제도 있었고, 재작년에는 4개의 답을 쓰게 한 문제도 있었지만 올해에는 모두 2개만 쓰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서술형 문제는 핵심적인 요소를 모두 2백자 내외에서 쓰도록 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작성 방법>에서 요구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 요구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네 줄로 제시되어 있으면 네 줄 안에 쓰는 것이 맞는 것이다. 네 줄을 덜 채워도 상관없지만(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네 줄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1.2 출제의 영역과 난이도 분석

국어학의 출제 범위를 크게 나누면 현대국어와 중세국어로, 좀더 세분하면 현대국어는 음운, 형태·통사, 의미, 어문규정으로 나눌 수 있고, 중세국어는 중세국어와 국어사로 나눌 수 있다. 이 영역들이 항상 동등하게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 해마다 약간씩 변동이 있으므로 그 흐름을 읽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현대와 중세의 출제 비율이 4:2였다. 작년에는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의미론이 출제되었는데, 올해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의미론을 뺀 주요 영역에서만 출제되었다. 중세국어의 음운론은 격년으로 출제되고 있는데, 올해 출제되지 않았으니 내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미론은 당분간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계속 출제되지 않은 어문 규정은 음운론이나 형태론과 결합하여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어떤 영역이든지 기본적인 사항은 잘 숙지하되,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을 중심으로 심화 학습하여야 한다.

영역 \ 년도			2020	2019	2018	2017	2016
현대 국어	음운론		1	1	1	1	1(중세국어와 통합)
	형태·통사론		3	2	3	3	3
	의미론			1			
	어문규정						
중세 국어	중세국어	음운론		1		1	
		형태·통사론	2(1개는 현대국어와 통합)	1(현대국어와 통합)	2	1	1
	기타(국어사)						1

2. 국어학 전체를 조망하면서 기본기를 다진다.

현재 임용고시 국어학 문제의 특징은 전반적으로는 어렵지 않지만 어려운 한두 개의 문제가 당락을 가른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학습 전략은 기본적인 개념을 충실히 다진 다음 이를 점차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많은 유형의 문제가 있지만 파고 들어가면 대부분은 개념과 연관된 문제이다.

2.1 기본 개념의 정리

개념이란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나 원리, 또는 기준이다. 무엇이 기준이 될 수 있는가? 규범 문법과 학계에서 정설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어떤 이론과 연결되는지, 어떤 맥락에서 출제되었는지 한 눈에 파악하지 못한다면 많은 문제를 풀어도 자기 실력이 되지 않는다.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가 검인정으로 되면서 이러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더 절실하게 되었다. <표준국어문법론>이나 <한국어 표준문법>은 기본 개념을 담고 문법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이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무작정 돌격해서는 승산이 없다.

다음은 품사의 개념을 묻는 문제이다.

<2020학년 전공A 4번>

다음은 학생과 교사 간의 대화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학생 : 선생님, ‘늙다’는 왜 형용사가 아닌가요?

교사 : 아, ‘늙다’가 형용사라고 생각했나 보군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말해 볼래요?

학생 : 네. 의미 면에서 ‘늙다’는 태어난 지 오래되어 나이가 많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라서요. 영어의 ‘old’ 역시 형용사잖아요.

교사 : 아, 그렇게 생각했군요. 그런데 국어의 단어들을 품사로 구분하고 분류할 때는 ‘의미’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국어에서는 단어의 (㉠)을/를 중요하게 고려해요. 이런 점 때문에 단어가 활용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가 국어의 품사를 가르는 데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의 양상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만일 (㉡)을/를 ‘늙다’의 현재 관형사형으로 보면 ‘늙다’를 형용사라 하겠지만, 그건 과거 관형사형이기 때문에 ‘늙다’를 형용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 문제 해설

품사 분류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이다. 품사 분류의 기준은 형태, 기능,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형태에 대해 묻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와 연결시켜서 문제를 만들었다.

2.2 기본 개념의 확장 and 활용

기본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는 이를 확대 적용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기본적인 개념을 응용, 확장하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과, 그것을 체화하는 것은 다르다.

<2020학년도 전공A 8번>

다음 (1), (2)는 15세기 국어 자료이고, (3)은 현대국어 자료이다. 15세기 국어에서 용언 어간의 활용과 이후의 변화를 탐구하여 그 결과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 (1) 즐겁고 <月釋21:6b>, 즐겁더니 <月釋21:207a>
즐거벼<月釋4:58b>, 즐거브며<月釋1:35b>
(2) 잡고 <月釋20:37a>, 잡더니<月釋25:92b>
자바 <杜詩6:25a>, 자바며<杜詩14:19b>
(3) 즐겁고, 즐겁더니, 즐거워, 즐거우며

<작성 방법>

- (1)에서 어간의 교체를 설명하기 위해 상정할 수 있는 2가지 교체 양상을 쓰고, 2가지 중 어느 것이 더 설명적 타당성이 높은지 (2)를 고려하여 그 이유를 설명할 것(단, 교체는 ‘무엇이, 어떤 환경에서, 무엇으로’의 형식으로 쓸 것).
- (1) > (3)에 일어난 음운 변화를 쓰고, 현대 국어 자음 체계를 고려할 때 (3)의 어간을 /즐겔 -/으로 상정할 수 없는 이유를 15세기 국어 자음 체계와 비교하여 설명할 것.

◆ 문제 해설

이번 시험에서 비교적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이다. 용언의 불규칙 활용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이를 좀더 확장하여 불규칙 활용의 기본형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발전시켰다.

(1)의 자료를 갖고 상정할 수 있는 어간은 ‘즐겁-’과 ‘즐겔-’이 된다. 현대국어라면 ‘즐겁-’과 ‘즐거우-’를 상정할 수 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즐겁-’만 떠올리기 때문에 이 둘을 상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어간의 변형이라는 기본 개념을 조금만 확장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

‘즐겁-’을 기저형으로 잡으면 자음이 올 때는 ‘즐겁-’으로 실현되고, 모음이 올 때는 ‘즐꺄-’으로 교체되고, ‘즐꺄-’을 기저형으로 잡으면 모음이 올 때는 ‘즐꺄-’으로 실현되고, 자음이 올 때는 ‘즐겁-’으로 교체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2)를 고려하면 ‘즐겁-’을 기저형으로 잡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ㅂ’으로 끝나는 용언에 모음이 연결될 때 규칙 용언인 경우에는 ‘ㅂ’으로 실현되고 불규칙 용언인 경우에는 ‘ㅃ’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에서 일어난 음운 변화는 ‘ㅃ>ㅂ’이다. 중세국어 음운 체계에는 유성 양순마찰음 ‘ㅃ’이 있었지만 현대국어 음운체계에는 ‘ㅃ’이 없기 때문에 ‘즐꺄-’을 상정할 수 없다.

3. 이론과 예문을 연관지어 공부한다.

중세국어는 물론 현대국어도 이론 따로, 예문 따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 이번 시험에서는 예문들이 특별히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꼼꼼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었다. 예문의 해석 능력이 문제 해결 능력이 된다. 다양한 예문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2020학년 전공B 8번>

<자료>에서 ㉠~㉣은 2개의 형태소가 결합한 것이다. 다음을 참고하여 <자료>의 ㉠~㉣을 분석한 결과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동일한 형태가 서로 다른 의미 또는 기능을 가진 별개의 형태소인 경우도 있고, 둘 이상의 다른 형태가 동일한 의미 또는 기능을 가진 경우도 있다. 전자의 예로 ‘엇던 사름고 <杜詩8 : 28b>’에서 ‘사름고’의 보조사 ‘고’와, ‘고돌 보고 믋스미 便安호야 <月釋12 : 28b>’에서 ‘보고’의 어말 어미 ‘-고’를 들 수 있다. 후자의 예로는 ‘호느다 <杜詩6 : 5a>’의 어말 어미 ‘-다’와, ‘보논 사름미라 <月釋2 : 46a>’의 어말 어미 ‘-라’를 들 수 있다.

<자 료>

- 俱夷 문즈북샤디 ㉠므스게 쓰시리 <月釋1 : 10b>
- 한 거슬 호나히 ㉡드외에 밍꺄르시며 <月釋4 : 40b>
- 놀개 두위터 明月스 ㉢둘에에 느려 <杜詩24 : 24a>

<작성 방법>

- ㉠ ~ ㉣을 각각 형태소 분석할 것(단, 교체가 일어난 것은 교체가 일어나기 전의 형태로 분석할 것).
- ㉠~㉣ 중 품사가 바뀐 것을 찾아 바뀐 후의 품사 이름을 쓰고, 바뀐 후의 품사를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자료>에서 찾아 설명할 것.

◆ 문제 해설

예문 분석이 그리 어렵지는 않지만 형태소 분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므스게’는 ‘므스+에’로, ‘드외에’는 ‘드외+게’로, ‘둘에’는 ‘두르+에’로 분석할 수 있다. ㉠의 ‘에’는 조사, ㉡의 ‘-게’는 어미, ㉢의 ‘에’는 접사이다. 이중 품사가 바뀐 것은 ㉢인데, 동사 ‘두르-’에 접사 ‘에’가 붙어서 명사가 되었다.

위 문제는 분석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서술하기는 매우 쉬운 문제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평소에 틈틈이 고전 강독을 해 놓아야 한다.

4. 논리적인 서술 능력을 기른다.

기입형 문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낱말 또는 어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서술형 문제에서는 출제자의 요구 조건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작성 방법>에서 요구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가장 적절한 핵심어를 선정하고 이 핵심어를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5. 기타 조언

▶ 임용은 마라톤이다. 긴 호흡으로 멀리 보고, 중간에 힘이 빠질 때를 대비하는 것이 좋다. 1년 단위로 계획을 잡되, 분기별, 월별 계획을 세워놓고, 주 단위로 점검해야 한다. 개론에서 시작하여 각론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중간 중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 자신의 성향을 알고 슬럼프가 왔을 때 대처해야 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운동이나 음악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갖는 것이 좋다.

▶ 마라톤 시합에는 페이스 메이커가 있다. 같이 뛰며 시간과 체력을 조절하게 해 준다. 가능하면 같이 달려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좋다. 스터디원은 자신의 현 위치를 가늠하고 점검할 수 있는 좋은 페이스메이커다. 자신을 아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이다.